

시안모물류협회

## 해군군수사령부 자매결연

### 민, 군 물류기술 발전 위한 정보교류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해군 군수사령부(사령관 소장 이성식)는 지난 달 11일 진해에 해군 군수사령부에서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상호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의 우의증진을 위한 정기적인 상호방문, 민·군 물류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물류현장 견학, 군 간부의 물류관리사 자격증 취득교육 및 전역 간부의 취업알선, 해양안보현장 체험교육 등의 자매결연 내용을 협약했다.

이 자리에서 서병륜 회장은 “군에서 경제적 군 운영과 전투부대 중심의 군수지원을 위해 구성원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며 “군 물류의 현대화와 스피드한 군수지원체계로의 전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병륜 회장을 비롯한 양원모(전 육군군수사령관), 이효진 협회고문과 김정식 코리아코프 대표, 이흥기 폴드라인 회장, 김휘일 덕유 회장 등 10명의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2월 21일에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류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다.



▲ 한국물류협회 해군군수사령부 자매결연

### (주)솔팩 김은갑 대표이사 경영관리부문 선정

한국포장기계협회(회장 최상식)는 지난 달 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9회 한국포장기계 대상 심사회의를 개최했다.

기계협회는 6월 30일까지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접수 마감하고 심사회의에 상정했으며 그 결과, 경영관리부문에는 (주)솔팩의 김은갑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김은갑 대표이사는 1996년 설립 이후 12년간 기업주로 재직하면서 IMF의 위기타개와 7%의 신제품개발비 투자 및 세계20개국에 수출과 사원의 복리증진으로 각종 교육비지원,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주택구입 자금지원 등으로 노사가 화합한 모범기업으로 성장 시켰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3년 설립된 (주)우도산기의 명노회 사장이 기술개발부문 수상자로 선정, 16년간 근속하면서 기존 BELT CONVEYOR 등에서 불가능했던 FLEXIBLE CONVEYOR의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ATTACHMENT CHAIN과 CONVEYOR의 구동부, 종동부, FOOT BASE 등을 다이캐스팅으로 신규 개발해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를 거뒀다는데 평가를 받았다.

또한 1998년 설립된 (주)두산플랜트의 강석우 대표이사는 분당 약 7백병~8백병인 액체 충전기의 현 기술수준을 특수 충전 VALVE의 개발로 분당 1천병 생산이 가능한 소형병충전기를 개발해 지식경제부로부터 NEP 마크를 획득하고 선진국 제조원가대비 50%의 수준의 완벽한 품질로 수입대체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해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중기청장상으로 상신키로 했다.

한편 품질관리부문과 수출판매부문에는 2008년도에는 해당자가 없다.

한국포장기계협회가 매년 시행하는 한국포장기계대상은 2000년도부터 시행, 금년 9번째로 오는 10월 10일 제10회 포장기계인의 날에 중기청장이 직접 부상 4백만원 상당과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 한국포장기계협회가 포장기계대상 심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번 심의에는 정수봉 과장(중기청), 신준섭 박사(용인송담대), 안철호 실장(품질기사협회), 김청 원장(자원순환기술원), 김영수 대표(경연전람) 등과 최상식 기계협회 회장, 김영순 부회장, 강신영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 드루파 2008을 통해 본 인쇄산업시장 전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와 월간 인쇄계가 주최하고 대한인쇄연구소가 주관하는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가 지난 달 11일 소피텔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렸다.

‘드루파 2008을 통해 본 인쇄산업시장의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 디지털 시장의 신기술 및 시장전망 △ 프리프레스시장의 신기술 및 전망 △ 프레스 시장의 신기술 전망의 세가지 파트로 진행됐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컨벤셔널 및 디지털인쇄를 위한 최적의 하이브리드 교정(CGS)를 비롯해 디지털 신기술 및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소개(로지트코퍼레이션(주)/HP), 인쇄산업시장의 변혁을 주도



▲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제4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개최

할 새로운 솔루션(신도리코/코닥)의 순서로 진행됐다.

두 번째로 편리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세척액 및 폐기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적인 경제적인 무현상 Ctp판재 AZURA 국내생산(아그파코리아(주))와 디자이너와 프리프레스를 위한 에스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스코아트워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만로랜드의 드루파 2008 하이라이트에 대한 소개와, 고모리의 5대 솔루션, 하이텔 베르그의 인쇄기 드루파 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동서식품(주) 김석수 부회장, 제3대 회장에 취임**

## EPR 대상 품목 확대 정부 당국 간의 노력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회장 김석수)는 지난 달 21일 임시총회를 개최, 제3대 회장으로 김석수 회장(동서식품(주) 부회장)을 선출했다.

김석수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후 동서유지(주)와 (주)동서의 사장을 거쳐 현재 동서식품(주)의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임시 총회 개최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임기동안 추진할 4대 목표로 △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 확대를 정부 당국에 건의 △ 페플라스틱의 연료 자원화를 보다 촉진 △ 협회가 직접 재활용 제품 개발과 판매에 앞장 △ 지속적인 협회 혁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밝혔다.

김 회장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6개 분류 외에도 EPR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페플라스틱 또한 시멘트 공장이나 영세 공장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설립된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과 저비용·고효율의 플라스틱재활용 공제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재활용업계, 스티로폼 사용 규제완화 요구**

**EPS 70% 이상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이 높고 수출도 잘되고 있는 품목을 단지 썩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협회 지명석)는 완구, 인형, 종합제품 스티로폼 포장재의 사용금지를 삭제하고 소형가전제품 완충포장용 EPS 포장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한 발포폴리스티렌생산업계와 도시락업계 등은 보온성이 뛰어난 발포스티렌을 대체할 만한 용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음식물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안전성과 보온성을 가지기에는 발포스티렌을 대체할 만한 재질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사용금지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 꾸준히 규제 철폐를 주장 건의해 왔다.

규제 사유는 매립시 난분해성을 비롯해 재활용 미흡과 대체 포장 포장재 산업의 보호였다. 그러나 협회측에 따르면 스티로폼(EPS)은 재활용체계가 정착돼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율은 지난 1993년 14%에 그쳤으나, 1997년엔 36.3%, 작년에는 무려 70.6%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스티로폼은 2008년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포장재 재활용 의무율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EPR에 따른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을 살펴보면, 종이팩 29.1%, 유리병 72.6%, 금속캔 73%, PET 73.7%인데 반해 스티로폼은 74.8%로 가장 높다.

국내 스티로폼 재활용업체들은 분리수거된 스티로폼을 이용해 잉고트(Ingot), 펠렛(pellet) 등의 재생원료 상태로 수출하거나, 그림액자몰딩, 욕실발판, 건축용 합성목재 등 다양한 PS 재생제품으로 생산해 수출 및 내수용으로 판매한다. 이들 스티로폼 재활용 제품들은 환경마크 및 GR마크, ISO 9001을 획득했다. 문제는 정부가 완구, 인형, 종합제품 포장재로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고, 소형 가전제품 완

충 포장용으로도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한 이후 원료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업체들이 고가로 스티로폼 잉고트와 파렛트를 수입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스티로폼 재생원료를 이용, 그림액자를 생산, 미국 등지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가상승으로 인해 수출로 경쟁력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티로폼 재활용업체는 스티로폼을 재활용해 만든 건축자재가 목재를 대체해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고, 외국에서 호평 받는 수출용 그림액자의 재생원료 부족도 해소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측은 가전 완충용 대체 포장재인 EPP, 고지발포재 등은 재활용 체계가 미흡하고 완구와 인형 등 종합제품 대체 포장재인 PP 등도 EPS보다 재활용이 저조해 스티로폼 포장재의 규제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스티로폼 포장재 사용규제 개선은 어려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산성본부

## 「그린물류 진단·개선도구」 개발

### 그린물류 컨설팅사업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배성기) 그린물류팀은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부문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 활동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린물류 진단·개선도구」를 개발했다.

금번에 개발된 「그린물류 진단·개선도구」는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의 그린물류체크리스트를 국내의 상황에 맞게 수정 및 통합, 진단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에 대해 평가기준, 관련지표, 개선방안, 선진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실질적인 진단 및 개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물류관리사협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모델의 완성도 및 신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올해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기로 한 상황에서, 금번의 「그린물류 진단·개선도구」 개발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생산성본부 그린물류팀은 향후 추가적인 선진사례 발굴 및 관련지표 개발 등을 통해 「그린물류 진단·개선도구」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업종별로 특화된 확장모델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진단·개선도구 및 컨설팅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그린물류팀은 그린물류 컨설팅사업을 본격화하고 물류부문뿐만 아니라 청정생산, 친환경 공급망관리, 친환경 제품개발, 그린마케팅 등 환경경영 전반으로 컨설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